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500만 '돌파'

순천만국가정원의 올해 관람객이 지난 28일 오후 5시경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명성과 사계절 관광지로서 순천의 위상이 높아진 덕분으로, 평일은 하루 평균 1만명, 주말에는 3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에는 10일 동안 7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역대 1일 최대 관람객인 14만명이 방문하는 등 가족 나들이하기 좋은 전국

정원갈대축제 성황리 진행 중

12월8일 '별빛축제' 막 올라

최고의 명소임을 확인한 바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9월 29일 막을 올려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정원갈대축제'가 삼바 퍼레이드의 열기와 화려한 미디어 아트쇼 등으로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가을을 맞은 순천만국가정원에는 정원갈대축제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까지 개최됐던 '한평정원페스티벌'의 출품작들이 11월 5일까지 전시되고, 완연한 가을 분위기를 풍기는 여새와 단풍도 만나볼 수 있다.

여만송이 국화전시를 즐기고 나눔 숲에 넓게 펼쳐진 핑크플로리와 어울려 사진을 찍는 관람객들은 모두 큰 만족감을 표했다.

가족 여행으로 국가정원을 찾은 김다람(서울, 34세)씨는 "높고 청명한 가을하늘과 어우러진 순천만국가정원의 멋진 풍경 덕분에 가족들 모두 행복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사계절 축제의 일환으로 봄꽃축제와 물빛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현재 정원갈대축제가 진행 중이며, 사계절축제의 마지막 별빛축제는 12월 8일 막을 올릴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농기계 순회수리·원스톱서비스

농번기철 맞아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적기영농 실현

순천시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반 기동수리 및 농기계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오지마을 및 취약지역 영농현장을 중심으로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경운기 및 관리기 등 농촌에서 많이 사용되는 농기계를 점검·수리해 주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 수리에 드는 비용은 한 대당 부품가격 5만원까지 무상으로 고쳐주는 등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 원스톱서비스는 운송장비(화물차)가 없는 원거리 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영농 현장까지 농기계의 운반, 수리, 회수 등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고객만족 원스

톱서비스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에 58종 276대의 임대 농기계와 운반차량 4대를 가동하여 적기 영농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대농기에서 선호하는 기종 55대를 추가 확보하여 이용률을 더 높이고 고령·여성 및 귀농 귀촌 농업인이 쓰기 편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신청은 순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https://www.amrb.kr/sca>)와 전화(덕일동 749-4888, 승주동 749-4681) 및 임대사업장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749-8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공무원 빅데이터 활용능력 키운다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위한 '해안 시스템 활용' 교육 가져



광양시는 공공서비스 분야 빅데이터 활용능력 향상 선도를 위해 10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했다.

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능정보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와 현안문제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

공공 빅데이터 이해 및 활용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오정열 사무관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교육은 데이터 개념과 활용목적, 국내·외 동향 및 사례, 해안시스템 활용방법, 향후 추진방향 등을 통해 직원들이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행정변화에 따른 빅데이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가올 미래변화에 대비해 직원들이 빅데이터

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행정혁신에 적용할 공공정책을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수 정보기획팀장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행정안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구현을 위한 직원들의 해안 활용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안'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빅데이터 공공기반 플랫폼으로 8개 주메뉴(일반분석, 분석모델, 전문분석 등)와 표준분석 모델, 키워드 분석 등 24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강소농 대전서 지역 농·특산물 알려

매실제품과 새싹삼 등...강소농 농가들의 자긍심 고취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관(A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강소농대전에 참가해 지역의 대표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강소농의 경영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각지에서 강소농이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해 소비자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농산물 전시·홍보 부스를 운영해 광양의 대표 농산물인 매실을 활용한 매실장아찌, 매실즙, 매실청 등 매실제품을 선보였다.

또 돌배즙과 단감, 대봉, 밤, 키위 등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전시했으며, 시식행사를 통해 농산물 홍보와 함께 소비자 간의 소통 활동도 펼쳤다.

특히, 강소농 대표농가로 알려진 산무루지새싹삼 황재익 대표가 참여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 새싹삼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남일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시 강소농 농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산물 홍보와 자율모임체 활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성료

20개 업체 참여 홍보부스 운영



나주시는 지난 27일 중앙동 천변공원에서 2017년 나주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나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최경자) 주관으로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치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20개 업체가 참여해 체험·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했다.

다.

이날 김판근 시의회의장, 장행준 부의장, 이민준·김욱기 도의원, 김영덕 시의원, 최경자 사회적경제협의회장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임직원 및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나주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이날 행사는 개회식, 소원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주민 참여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졌다.

행사에 참석한 시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은 "이번 한마당 행사가 시민들이 서민 경제의 한 축으로 활발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성과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순군, 외국인주민화합한마당 대상

다문화지원센터 소속 화정팀, 깃발팀 전통춤 선보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지원센터)가 '2017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 위탁기관인 다문화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주관, 27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화정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착과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몽골, 필리핀, 일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어린이로 구성된 16개 팀이 합창, 난타공연, 사물놀이,

전통춤 및 퓨전춤 등 그 간 같고 닮은 실력을 뽐내며 열린 경쟁을 펼친 가운데 '화정' 팀은 한국 전통가락을 일본의 축제음악과 접목한 퓨전음악을 바탕으로 깃발 전통 춤을 선보였다.

화정팀은 순천에서 열린 전남다문화가족 문화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 전남도 대표팀으로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으로서 활력 있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

